第29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作品

서울十二支풍물놀이

일 시: 1988.10.21～10.23 • 장 소 : 전주시 공설운동장

서 울 特 別 市

서울 12지 농악

농악형태는 악기가 구비된 것이 아니고 무용을 위주로 해서 다만 북을 두드리는 단순한 형태가 되어 점차 많은 악기를 변형하여 발전되면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여러 형태의 놀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지방의 특색으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농악의 종류는 축원형태, 노작형태, 건립형태로 구분되며 전래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건립 형태의 농악은 중부 이남지방에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동네의 안녕을 빌어주는 의식으로 훌륭한 솜씨를 마음껏 보여주고 그 댓가를 받아 마을의 공익 사업에 쓰고, 또한 연예 단체는 자기들의 생계 유지를 하는 수단으로 이어져 정월 한달내내 돌아다닌다. 특히, 서울에는 작지로부터 많은 건립패가 들어와 동네 곳곳에 농악이 성시를 이루게 되고 각양각색의 잡색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기예를 보여주며 잘하는 패는 하루에도 수십집에 불려가 집안굿을 해준다.

특히, 서울 고관대작집에서는 출중한 기예를 갖은 패를 집으로 불러 굿을 하는데 이중에서는 12지의 탈을 쓴 농악대가 큰 인기를 끌어 후한 대접을 한 놀이가 전하여 오고 있다.

12지 농악은 사물 악기를 갖추고 잡색중 12지상의 탈을 머리위에 쓰고 굿을 할때에는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잡기를 몰아내는 시늉으로 역할을 다한다. 아마 12지의 탈의 등장은 1년세시내내 집안의 무사태평과 생기복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패거리가 집에 불려오면 먼저 성황굿, 우물굿, 문굿, 성주굿, 조왕굿, 터주굿, 고방굿, 마당굿으로 이어진다. 그집의 안녕을 위해 고사풀이를 구성지게 하면 집안에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패들의 흥을 돋는다.

놀이가 끝날 무렵 집안에서 한바탕 끝놀이가 끝나고 집밖 마당에서 구경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기예를 총동원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 놀이는 흥이 고조되어 끝판에는 동네 사람과 어울려 밤이 가는줄 모르고 신명나게 논다.

1과정 성황굿

건립 패는 동네에 들어오면 용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성황당을 빙글빙글 돌며 가락을 울리며 신에게 고한다. 부정을 물리치는 굿을 하고나면 건립패는 모두 당을 향해 인사를 드리고 신을 받아 당을 떠난다.

2과정 우물굿

마을 영기의 인도로 공동 우물로 가면 치배들은 우물을 둘러서서 상쇠의 덕담으로 1년내내 항상 맑은 물이 철철 넘치기를 기원하며 빠른 가락의 굿을 한다.

3과정 문 굿

만복과 재화가 대문을 통해 꾸역꾸역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문굿은 들어가오 들어가오 만인간 들어가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
상쇠의 굿풀이에 이어 연회자 일행이 춤을 추며 문안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나와 반갑게 맞이한다.

4과정 성주굿

성주 대신 덕망으로 가내 무사 태평 기원하며 구성진 고사 덕담이 이루어진다.
집안가솔 모두 나와 합장 인사하며 복과 덕을 청한다.

5과정 조왕굿

부엌은 가장 중요한 식생활을 관장하는 곳으로 부엌에는 항시 조왕사발 올려놓고 부정없도록 빌며 생기 복덕을 기원한다. 치배들은 부엌 구석구석 굿을 친다

6과정 터주굿

패 거리는 터주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고 나면 모두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 외치며 땅을 꼭꼭 밟아준다

7과정 고방굿

가득든 광에 많은 곡식 감사하며 풍년들어 곡식 쌓이도록 기원하며 금년 농사 대풍토록 치배들 구성진 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며 흥겹도록 집안 식구 동네 사람 어울려 논다.

8과정 마당굿

이집 저집 돌고나면 해질 무렵 동네 사람 모아놓고 동네 안녕과 무사태평, 복을 빌고 신명나게 한데 어울려 마음껏 뛰고 즐기는 가장 흥겨운 뒷풀이로 끝난다.

, 복을
날난다.

考證·構成·演出 및 演戱者

○학술고증
심우성 : 한국민속극연구소장

○작품구성
홍성학 : 풍물보존회대표

○연출지도
홍성학 : 풍물보존회 대표
김홍수 : 풍물보존회

○연희자
- 호적 : 장기선
- 쇠 : 김홍수 외 5명
- 북 : 정철기, 임웅수 외8명
- 탈 : 차봉환, 최재명 외10명
- 가솔 : 전연길, 윤영선, 박양숙
- 잡색 : 백순자 외9명
- 징 : 이견주, 김지춘, 공한주
- 장고 : 안도경, 김준교 외6명
- 소고 : 김경호, 이흥모 외8명
- 기 : 윤재만, 김익세 외10명
- 소리꾼 : 진성진 외9명
- 동네 : 배성준 외 19명